

선교와 디아스포라

석사과정 박효성

서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 역사의 흔적들 중에서 대한민국사람이라고한다면, 누구나 공감하며 좋아했던 역사의 기억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기억들도 있다. 특히, 역사의 기억들 중에서 좋아할 수 없고, 추억을 떠올리기 싫은 기억 중에서도 ‘일제 강점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대표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아직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일본으로부터 많은 수탈과 고초를 겪은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더욱이 일본이 독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면 화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역사의 기억을 회상하기는 싫겠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서두에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편 속에서 한 시점을 끄집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디아스포라(diaspora)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일본강점기부터는 아니지만, 필자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른 관점과 직·간접적 강제 이동이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A. 디아스포라

1. 디아스포라의 개념

디아스포라는 본래 이산(離散)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국민들을 이주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이 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주와 식민지 건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디아스포라가 유대인의 이산과 관련하여 “(유대인의)바빌론 유수 이후 팔레스타인 밖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 거류지” 혹은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게 되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 되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이산뿐만 아니라 국제 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¹⁾ 특히 디아스포라의 형성적 특성이 보다 강조되어 디아스포라는 “근대의 노예 무역, 식민지배, 지역분쟁 및 세계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²⁾

1)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5쪽

또, 사프란은 디아스포라의 특성으로 특정한 기원지로부터 외국의 주변적인 장소로의 이동, 모국에 대한 집합적인 기억, 거주국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희망의 포기과 그로 인한 거주국 사회에서의 소외와 격리, 조상의 모국을 후손들이 결국 회귀할 진정하고 이상적인 땅으로 보는 견해, 모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헌신, 모국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의 여섯 가지를 들었다.³⁾

2.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시기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일반적으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분산”으로 정의된다.⁴⁾

이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보통 네 가지의 시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한일합방이 일어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구한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이로 이주했다.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한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일제 통치시기에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전시체제의 일본으로 이주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2년(남한정부가 이민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한인 이민자와 그 후손은 이 시기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다.⁵⁾

3.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또 다른 구분(재해석)

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시기의 구분이 보편적인 구분 즉, 총체적·역사적 입장의 구분이라고 한다면, 필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구분을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와 ‘일반적 디아스포라’의 입장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일반적 디아스포라는 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분쟁 및 세계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의미’를 뜻한다.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는 뜻에서와 같이 ‘외부 자극’이라는 입장에서 모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지만, ‘자기주도적’이란 뜻에서 보면, 타인의 강제적인 이산, 이주가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국을 떠나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을 뜻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윤인진씨에 의하면,

2) 정성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자기인식과 디아스포라 미션』, 선교와 신학 17집, 16-17쪽

3)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5-6쪽

4) 위의 책, 8쪽

5) 위의 책, 9-19쪽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엽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주했던 구이민자들과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한 신이민자들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구이민자들은 기근, 압제, 식민지 통치와 같은 모국의 배출요인에 의해 이주하게 되었고, 계층배경은 주로 농민, 하층계급이었고, 거주국에서의 정향성은 정착보다는 일시체류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신이민자들은 모국의 배출요인 못지않게 거주국의 흡인요인(높은 생활수준과 교육기회)에 강하게 끌렸으며, 계층배경은 도시출신의 고학력, 중산층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거주국에서의 정향성은 처음부터 영구정착을 목표로 하였다. 구이민자들은 코헨이 말한 ‘피해자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으나 신이민자들은 ‘통상’, ‘노동’, ‘제국’, ‘문화’ 디아스포라의 어느 유형으로도 보기 어려운 집단이다.⁶⁾

그렇다면, 신이민자들은 디아스포라인이 아니라 이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물어 볼 수 있겠지만, 이들 또한 다른 이면에서 보면, 외부 자극 또는 폭력적인 고통을 통해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속해있던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회구조가 ‘잘 먹고 잘살아야한다’는 패러다임속에서 더 잘살기 위해 해외라는 곳으로 뛰쳐나왔기에 필자는 이것 또한 외부 자극 또는 폭력으로 인한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인은 일제 강점기 이전 시대 사람들처럼 강제적 이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주하는 사람들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강제적 반자발적인 이주하는 사람들,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총체적 역사적 입장에서 구분하는 것과 일반적 디아스포라와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와로 구분 할 수도 있다.

4. 디아스포라 현황(이주민)

세계 지역별 거류민들은 총 6,822,606명이다. 그리고 그 숫자의 분포도는 아래와 같다.⁷⁾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프가니스탄 159	캐나다 223,322	알바니아 72	알제리 183	미국령사모아 -
아르메니아 378	멕시코 12,072	오스트리아 2,247	앙골라 455	오스트레일리아 125,669
아제르바이잔 163	미국 2,102,283	벨라루스 1,265	베냉 8	피지 950
바레인 195	남아메리카	벨기에 743	보츠와나 163	마셜제도 34
방글라데시 1,046	아르헨티나 22,024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6	부르키나파소 59	마이크로네시아 25
부탄 7	벨리즈 30	불가리아 170	카메룬 155	뉴질랜드 30,792
브루나이 108	볼리비아 640	크로아티아 50	카보베르데 2	팔라우 113
캄보디아 4,772	브라질 48,419	체코 1,78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	파푸아뉴기니 222

6) 윤인진,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 한민족이산과 한민족공동체 형성방안』, 해안, 2009, 270쪽

7) 국제통계연감 : 아래표는 2009년 한국 제외동포현황이다.(통계청KOSIS)

중국	2,336,771	칠레	2,249	덴마크	279	국		
동티모르	52	콜롬비아	710	에스토니아	5	차드	32	사모아 -
그루지야	28	코스타리카	730	핀란드	213	코모로	3	솔로몬제 42
홍콩	12,133	도미니카공화국	518	프랑스	14,738	콩고	14	도 46
인도	8,337	에콰도르	1,418	독일	31,248	콩고민주공화국	103	통가 46
인도네시아	31,760	엘살바도르	272	그리스	356	코트디부아르	141	바누아투 46
이란	614	과테말라	9,921	헝가리	1,053	이집트	976	
이라크	62	아이티	47	아이슬란드	10	에리트레아	7	
이스라엘	560	온두라스	406	아일랜드	1,146	에티오피아	212	
일본	912,655	자메이카	102	이탈리아	4,203	가봉	90	
요르단	356	니카라과	531	라트비아	46	감비아	36	
카자흐스탄	103,952	파나마	306	리투아니아	41	가나	519	
쿠웨이트	1,058	파라과이	5,229	룩셈부르크	54	기니	43	
키르기스스탄	18,810	페루	812	마케도니아	10	기니비사우	10	
라오스	547	세인트루시아	5	몰타	103	케냐	707	
레바논	116	수리남	66	몰도바	126	레소토	-	
말레이시아	14,580	트리니다드토바고	37	네덜란드	1,722	라이베리아	37	
몰디브	18	우루과이	152	노르웨이	488	리비아	854	
몽골	2,323	베네수엘라	325	폴란드	1,034	마다가스카르	226	
미얀마	888			포르투갈	159	말라위	113	
네팔	374			루마니아	456	말리	18	
오만	699			러시아	222,027	모리타니	31	
파키스탄	529			산마리노	1	모리셔스	11	
필리핀	115,400			슬로바키아	1,495	모로코	358	
카타르	2,365			슬로베니아	29	모잠비크	78	
사우디아라비아	2,014			스페인	3,647	나미비아	19	
싱가포르	13,509			스웨덴	1,434	니제르	14	
스리랑카	854			스위스	2,141	나이지리아	920	
시리아	121			우크라이나	13,001	아		
대만	3,158			영국	45,295	세네갈	170	
타지키스탄	1,762					시에라리온	56	
태국	20,200					남아프리카공화국	3,949	
터키	1,396					수단	99	
						스와질란드	19	
						탄자니아	360	

투르크메니스탄	438
아랍에미리트	3,114
우즈베키스탄	175,939
베트남	84,566
예멘	222

토고	105
튀니지	170
우간다	228
잠비아	84
짐바브웨	136

B. 선교

1. 'Mission'과 '선교(宣敎)'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수업이었던 것 같다. '선교학'시간에 교수님께서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셨다. 그 때 어떤 학생이 "타문화권에 가서 생활양식과 음식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속으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말씀 하셨을 때, 그것은 '전도'입니다. 라고 학생들이 대답했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것은 모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선교와 전도는 같은 것입니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성경책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성경책에는 '선교'라는 단어는 없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일까? 필자는 이 선교의 의미를 'Mission'과 '선교'로 나누워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보통 선교는 영어 'Mission'을 뜻하며, 'Mission'의 뜻을 영영사전에서는 "A mission is an important task that people are given to do, especially one that involves travelling to another country", 한영사전에서는 "임무"(특히 외국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을 뜻하고 있다. 라틴어로는 동사 'mittere'(보내다 또는 파견하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명사형으로 'missio'로 '내보냄'(sending off, sending away)을 의미한다. 이런 뜻으로 'Mission'을 해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선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맥거브란(Donald A. McGavran)박사는 Mission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Mission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전도와 정의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⁸⁾"

또, 우리말로 '선교(宣敎)'라는 말은 "베풀고(宣) 가르친다(敎)"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의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성경에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여기고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장 19~20절)"

8)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8-20쪽

에서 중요한 선교적 명령은 ‘가르치라’와 ‘지키게 하라’이다. 이 둘은 예수님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스스로 지키며, 또 다른 이들에게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지켜나가도록 하라는 것이다.⁹⁾

이렇게 ‘Mission’과 ‘선교’ 뜻을 가지고 선교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한국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아 보이지만 서로 조금 다른 의미를 보여준다. 보통 영어의 “Mission”으로 표현하는 것이 국제적이고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이 뜻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져오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Mission이라는 영어가 “군인에게 임무를 주어 보내다.”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의 어떤 작전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Mi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Mission’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군사적 의미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음을 잘못된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 성서적 근원과 분리하여 잘못 이해해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¹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왜곡된 ‘Mission’이라는 의미가 교회와 선교의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 식민지 정복, 토착민과 문화 말살 등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즉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 했다. 오스트리아의 정치가 Peter Pilz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대적하여-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한 전투”(Mit Gott gegen alle - Amerikas Kampf um die Weltherrschaft,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의 첫 번째 ‘Bin Bush’라는 장에서 미국 대통령 부시의 이라크 침공과 9.11테러의 배후세력으로 알려진 빈 라덴의 테러를 ‘mission’이라는 단어로 비교하고 있다. 둘은 신의 소명을 받아 악을 제거하는 ‘mission’을 받았다는 믿음에서 살인과 전쟁까지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부시는 세상에 악의 세 축을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폭탄으로 제거해야 평화가 온다는 것을 mission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디언들의 땅에서 그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기초 놓았던 역사적 사실 또한 한 예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영어의 영향이 한국에서는 교회가 교인과 그들의 행사를 나타내는 말로 ‘기도 특공대’, ‘전도폭발’, ‘여리고 함락작전’, ‘40일 기도 작전’ 등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폭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일과 선교를 혼동하게 하는데 별무리가 없게 만든 듯하다. 전쟁의 사명은 철저히 보낸 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제거하여 승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듯 mission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잘못 이해되기가 십상이며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현 독일의 선교신학을 대표하는 테오 쉰더마이어(Theo Sundermeier)는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다가, 서구와 제1세계의 말로는 예수가 제자를 보내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제3세계의 인디언들의 축제의 언어인 콘비벤쯔(Konvivenz, 함께 어울려 축제함)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선교는 서로 배우고, 서로 도우며, 서로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선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이며, 폭력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¹¹⁾

9) 박창현, <http://blog.daum.net/coolfaith/12857207>

10) 위의 책, 21쪽

11) 박창현, <http://blog.daum.net/coolfaith/12857207>

이처럼, ‘선교’라는 의미를 군사적 용어와 혼용되는 'Mission'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여 무조건적 포교(布教), 또는 전도 등을 해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자신의 삶속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그 사람도 지켜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선교지 상황

2-1. 아시아

아시아는 세계 45억 중에서 57%가 살고 있으며 공산주의에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세계 5,660개 방언 중에서 1,956개의 언어를 가진(35%)가장 복잡한 지역이요, 아직도 비기독교인들이 9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은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뿐이다.

a. 동남아시아: 버마, 태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은 복음전하기 어려운 지대이다.(불교 및 혼합종교)

b. 공산권: 중공, 북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c. 회교권(서부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쉬, 푸탄, 세일론, 네팔, 파키스탄, 인도 등

d. 회교와 힌두교·불교권: 이교가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¹²⁾

2-2. 아프리카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는 지하 자원의 보고이며 아직도 세계 개척자들의 관심지이다. 그러면서도 기근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사하라남부의 인구중 52%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중생을 체험한 수는 10%미만일 것이다.¹³⁾

아프리카 교회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로는 민족주의와 서구 배경의 배경에서 자라난 “아프리카 신학”(African Theology)이 있다. 이것은 상황의 신학(Theology of Contextualization)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다분히 혼합주의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도 복음주의 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서구화로 인하여 여러 교파가 생겨나고 있고 교회들이 가지는 신학적인 다양성에 더욱 분열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혼란시킨 것 중에서 선교 초기부터 있던 분열과 경쟁의식보다 더 심한 것은 없었다.¹⁴⁾

2-3. 남미

전세계 면적의 약 16%를 차지하는 남미는 24개 국가로 구성돼 있는데 전인구의 90%가 카톨릭 신도이다.¹⁵⁾ 그리고 현재 미국 카톨릭 교회 선교사의 40~50%가 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상당히 진보적이며 심지어 혁명적인 사람도 있다.

12) 김수읍,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 선교현황과 정책』, 책사랑, 219쪽

13) 주진국, 『한국교회 아프리카 선교전략』,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3, 3쪽

14) 김수읍,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 선교현황과 정책』, 책사랑, 220-221

15) 손봉호, 『해방신학의 올바른 이해』, 크리스찬 타임즈 1984년 10월호, 101쪽

300여년 이상이나 카톨릭에서 일방적으로 장악해 왔기 때문에 인구의 90%이상을 교인화한 상황을 볼 때 개신교에 어려움이 많다.

C.디아스포라선교

우리는 위에서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선교’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봤다. 이곳에서는 ‘디아스포라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처음에 디아스포라를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와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로 나누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국을 떠나는 이유가 직·간접적으로 폭력이나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떠나는데 그 동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집단이 서로 모였을 때 문제가 발생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인의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평균 2-3세대 또는 3-4세대들이 그 거주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생활모습은 거의 현지인들과 비슷해져있고, 그들의 ‘자기인식’, ‘자아의식’은 한국인들보다는 현지인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의 의식속에 한국인의 정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심하게는 모국어를 말하지도 알아듣지도 못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외모는 현지인들 보다는 한국적 이미지가 다소 많이 남아있고, 알게 모르게 부모 또는 형제들로부터 받는 한국인의 정서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시기적으로도 이들보다 늦게 이주했고, 심하게는 이주한지 몇 년, 몇 개월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이들은 현지인들의 문화보다 모국의 문화와 환경에 더 친숙하고 모국의 정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있던 구이주민들이 원주민들보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며, 그래도 한국인인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 구이주민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기존 구이주민들과 자신들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접점에서 문제들이 발생 한다.

필자는 특히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도 기존 디아스포라인들과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인들 중 특히, ‘선교사’들과의 갈등에 주목하려고 한다.

‘선교사’들은 보통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목회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로 나뉜다. 보통 ‘목회자 선교사’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 안수를 받고 목사의 신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뜻하며, ‘평신도 선교사’는 그와 비슷한 신학교는 나왔으나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또는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선교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를 나올 때, 보통 현지어보다는 영어를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막상 현지에 와서 직접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기가 힘들다. 물론 현지어를 미리 배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통 1-2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 현지어를 배운다. 영어권인 나라인 인도나 필리핀에서도 상황은 같다. 그렇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게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인들이 많은 곳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야만 현재 속해 있는 지역이나 자신이 거주하려는 지역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기존의 구이주민들과 접촉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얻고, 이들 또한 모국의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들을 새이주민들을 통해서 모국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마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언어적인 부분과 정보의 공유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보면, 어느 정도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care’ 또는 선교하려고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을 ‘디아스포라 선교’ 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꾼다면, ‘종교적 혹은 문화적인 주류집단 가운데 살고 있는 비주류집단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선교를 의미’한다.¹⁶⁾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많이 적다. 보통 선교를 하러 해외에 나올 때에는 그나라 현지인들을 개종시키려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디아스포라인들에 대한 정보 또한 적다. 그래도 한국인의 정서상 일단은 무엇인가 해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보통 모국에서 했던 목회방식과 목회를 하면서 얻었던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구이주민들을 선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인들의 생각들대로만 가지고 하는 방식들이 들어 있다. 거기다가 이들은 'Mission'이란 임무적 의미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 어떻게든 개종시키려는 전투적 자세로 달려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인들, 구이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소들을 알지 못하면, 문화도 다르고, 생활권도 다른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보통 이주민들은 문화적 적응론, 동화론에 의하면, 소수민족들이 주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 주류사회의 문화 즉 언어, 가치관, 행동양식, 생활양식을 수용한 사람도 있고¹⁷⁾, 문화변용에 따라서 소수집단이 주류 집단과의 관계형성과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의 유지와 관련해서 통합, 동화, 고립, 주변화라는 네 가지로 분류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¹⁸⁾

보통 선교사들과 디아스포라인들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한국문화를 버린 것들에 대한 이해도이다. 특히 일본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선교사들은 구이주민들의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을 잘 알지 못한다. 강제적으로 모국을 떠나 살면서 받았던 고통과 차별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선교사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지에 속한 사회속에서 극심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러한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 현지인이 되려고 자국의 문화를 버리고, 현지화 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계속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한국인이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들을 매국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말과 문화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 속에서 강제로 모국을 떠나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

16) 정성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자기인식과 디아스포라 미션』, 선교와 신학 17집, 14쪽

17) 위의 책, 20쪽

18) 위의 책, 21쪽

지, 현지 생활속에서 그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로, ‘그래도 한국인인데’라는 생각이 문제다. 즉, 선교사들이 구이주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하나의 객관적 주체로서 또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국에서 태어나 자라온 사람들을 대하듯 모든 프로그램이나 어떤 선교방식들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쓰고 있는 ‘전도폭발’, ‘고구마전도법’ 등등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방법들을 아무 생각 없이 구 이주민들에게 사용해서 그들에게 불편함과 또 다른 아픔의 일들을 겪게 한다. 한 예로, 한 도시에서 친구초청잔치가 있었는데, 그 친구초청잔치에 한 선생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그 부모님과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 그 가족은 부모님이 모두 세탁소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했다. 그래서 교회에 왔던 아이가 동생을 돌봐야하는데, 그 선생이 억지로 교회에 오면, 맛있는 것과 재미있는 것이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고 하면서 끌고와서 동생을 돌보지 못해 동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 선생은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했던 방법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처럼, 선교사들이 구이주자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결론

‘선교’,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선교’ 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글을 써야할지 막막했다. 이병수 선생님의 문제제기정도면 된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서 형식도 엉망이고, 내용도 뒤죽박죽인 이 글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Mission'(임무)라는 의미로 자행되었던 개신교들의 무분별한 선교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모습속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라는 말이 어떻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아프게하게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바꿀려고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선교’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서러움들을 먼저 고민해보고, 동참해보고, 겪어봤을 때 진정한 선교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쳐 지키게하라’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정성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자기인식과 디아스포라 미션』, 선교와 신학 17집

윤인진,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재구성 - 한민족이산과 한민족공동체 형성방안』, 혜안, 2009

김수읍,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 선교현황과 정책』, 책사랑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8-20쪽

주진국, 『한국교회 아프리카 선교전략』,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3

손봉호, 『해방신학의 올바른 이해』, 크리찬 타임즈 1984년 10월호

박창현, <http://blog.daum.net/coolfaith/12857207>

2011.09.27.화.HK통일인문학연구단 월례발표회

박효성의 「선교와 디아스포라」에 대한 토론

이원영(정서문예팀)

먼저 글을 받아 읽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음을 밝힙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논문 형식의 글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 바탕이 된 에세이 형식의 글에 더 가깝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이를 평가하기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글 전체를 관통하는 기조가 코리아 디아스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필요성에 전체적 조건을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코리아 디아스포라인 선교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논문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선교를 하는 것이나 특정 종교를 신앙하는 것 모두 개인의 자발적인 정신적 자유와 관련된 선택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표자께서 계속하여 염두하고 있는 코리아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 개인적 갈등을 유발하기에 가급적 빨리 해소되어야 하는 지점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디아스포라를 구성하는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까지 함께 연결하여 논의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 선교학, 선교방법론에 더욱 가까운 쟁점이 아닐지요. 그것을 염두한 것이라면 그쪽 방면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2. 다음 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이민자들은 디아스포라인이 아니라 이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물어 볼 수 있겠지만, 이들 또한 다른 이면에서 보면, 외부 자극 또는 폭력적인 고통을 통해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속해있던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회구조가 ‘잘 먹고 잘살아야한다’는 페러다임속에서 더 잘살기 위해 해외라는 곳으로 뛰쳐나왔기에 필자는 이것 또한 외부 자극 또는 폭력으로 인한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인은 일제 강점기 이전 시대 사람들처럼 강제적 이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주하는 사람들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강제적 반자발적인 이주하는 사람들,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총체적 역사적 입장에서 구분하는 것과 일반적 디아스포라와 자기주도적 디아스포라와로 구분 할 수도 있다.”(발표문 3쪽)

신이민자들을 외부 자극 또는 폭력적 고통으로 인한 디아스포라인들이라고 보는 시각이 과연 신이민자 전체를 포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신이민자들의 이민행위는 생존을 위한 도피에 가까워야 할 것인데, 실제로 신이민자들이나 선교사들 집단공동체의 삶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것이 디아스포라인의 행보라고 한다면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을 아닐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렇듯 욕구충족에 대한 개인적 심적 고통을 객관적 근거로 보신다

면 학벌문화의 강요 속에서 해외대학으로 진학하여 나름의 심적 고통과 험겨운 적응생활을 겪는 많은 유학생들도 모두 디아스포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몽신화〉의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양육(養育)’의 덕목에 대한 고찰

박재인(건국대학교 시간강사)

1. 서론
2. 북한에서 바라본 지혜롭고 현숙한 어머니, ‘유화’
3. ‘지혜 전수’와 ‘떠나보냄’의 가치, ‘유화’를 통해 드러난 양육의 덕목
4. 결론

□ 논문 요약 □

이 연구는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정서 내지 가치관이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착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남한과 북한의 학계에서 중시하고 있는 <주몽신화> 속 인물 ‘유화’에 대한 연구들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남한에 구비전승되고 있는 구비설화 속 어머니들의 모습과 비교를 통해,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유화의 현숙한 어머니로서의 면모에 대한 의미를 심화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남한 문학계에서는 유화의 신적인 면모에 주목하거나, <주몽신화>에서 드러난 유화의 삶 전반에 주목하여 가부장제 사회 속에 수난을 인내하며 살아하는 여성 개체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영웅을 양육한 현숙한 어머니의 전형으로 예찬하여, 보다 그녀가 이루어낸 양육 성과에 주목하고 있었다.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은 주체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숨은 영웅’의 특성에 부합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양육의 방식 및 훌륭한 어머니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예찬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구비설화에 등장하는 어머니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유화의 덕목을 구체화하여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북한의 핵심 문학연구들을 기반으로 유화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장면과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 덕목의 의의를 구체화하였다. 아직 불완전한 존재인 영웅이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데에 부모의 역할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아기장수>와 <정승의 사위 된 황도령>을 들어, 유화의 덕목이 영웅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론한 작품들이 현대의 남한에서 구비적으로 전승되는 설화작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본 연구의 취지와 같이 남과 북의 소통의 지점을 마련하는 작업에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영웅이 생산되는 데에 인간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양육의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남북 공통의 인식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주몽신화>, 유화, 북한, 양육, 숨은 영웅론, <아기장수>, <정승의 사위 된 황도령>

1. 서론

60년 넘게 다른 생활양식으로 살아온 남과 북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을 전제하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문제, 즉 정서, 가치관 등등의 차이 역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문제에서 체제 통합에 앞서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인간 내면은 하나의 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그 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문학작품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을 살펴보는 일 또한 각 개체의 정서와 가치관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작업일 수 있다. 이에 이 논의는 남한과 북한의 정서 내지 가치관이 지니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포착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한 작품에 대한 남·북한 연구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 전제하고 진행되었다.

북한의 문학 연구는 그 사상적 토대에서 비롯된 획일화된 문학사관이 강요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의 내면을 파악하기가 무리일 수 있다는 반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면해야 할 현재의 그들은 통제되고 획일화된 문학연구로 교육받고 성장해왔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정서를 정제시켜 왔을 것이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고찰하는 작업에서 그들의 문학 연구 성과에 주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북한의 문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몽신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북한에서 고구려의 기상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애국애족적 주제사상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¹⁹⁾ 그리고 ‘전설’로 간주되어 신화보다 인간관계와 인간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평가하여 왔으며²⁰⁾, 현대에까지 재창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는 바²¹⁾, 북한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중 북한의 연구에서는 위업 성취의 주체이자, 영웅인 ‘주몽’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유화’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를 자애롭고 현숙한 어머니의 표상으로 여기면서 그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흐름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해 예찬하고 있었다. 유화가 영웅을 출산하고 키워낸 이야기의 흐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양육’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유화에 북한의 평가는 현실에서의 ‘양육’의 문제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남한에서 발표된 건국설화에 대한 북한의 연구를 고찰한 논의로는 김준기²²⁾, 송이랑·김경호²³⁾, 이재원²⁴⁾ 등이 있으며, 신화 장르 전반에 관한 북한의 문학사관을 제시하거나

19)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3~104면.

김호성, <고구려건국설화-주몽전설>, 『천리마』 1992.12호.

허태선, <고구려의 건국설화 - 주몽전설>, 『민족문화유산』 2003.4호.

20) “현실적인 인간성격과 인간관계가 이야기줄거리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점에서 선행한 시대의 건국설화들과 전혀 구별되는 새로운 전설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7면.)

21) <주몽전설>은 김호성에 의해 재창작되어, 2005년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자료:옛글에 보이는 주몽』에 역사소설 <주몽>으로 발표된 바 있다. 남한에서 발표된 이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임옥규, 「북한 역사소설의 고조선·고구려 형상화 연구 -<주몽>, <담징>, <부루나의 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1집, 2007, 137~165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22) 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171~190면.

23) 송이랑 김경호, 「北韓體制에 있어서 神話」, 『동아논집』 제39집, 동아대학교, 2002, 117~138면.

대표신화인 단군신화에 주목하여 그 문학사관의 특징을 밝혀온 성과가 있다. 그 중 <주몽신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김준기²⁵⁾의 연구에서는 체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몽신화>에 대한 논점이 변화한 측면을 살피고 있다. 북한이 특별하게 주목하는 유화에 대한 관점은 상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으나, 본고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지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기왕에 이루어진 <주몽신화>에 대한 북한 연구에 대해 고찰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유화’에 대한 북한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면서 ‘양육’의 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대까지 남한에 전승되어온 구비설화들과의 비교를 통해 유화가 전달하는 양육 문제의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2. 북한에서 바라본 지혜롭고 현숙한 어머니, ‘유화’

남한의 문학계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은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신화의 의미를 과거 이상으로 현재와 미래와 맺어져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인간의 생활을 양식화 한 근원적 동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화의 기능이다.”²⁶⁾와 같이 남한 학계에서의 신화가 갖는 위상은 과거의 것을 넘어서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신화의 주인공들을 보통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 내지 ‘영웅’²⁷⁾으로 규정하며, 신화를 신성적인 영웅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한다. <주몽신화>와 같은 건국신화는 신격의 혈통과 좌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²⁸⁾, 이에 따라 천신이 아들을 파견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경우와 스스로 건국의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로 나뉜다고 유형화하기도 하였다.²⁹⁾ 영웅의 출신 배경이 ‘하늘’이고 건국 의지가 실현되는 공간이 ‘지상’이라는 특성을 두고, 하늘은 주인공이 추구하는 이상을 상징하고 지상은 주인공이 넘어서야 할 현실이라고 보며 신화의 배경이 지닌 의미가 이중성을 띤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³⁰⁾

그리고 <주몽신화>와 같이 영웅이 지상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위업을 성취한 일련의 과정을 다른 신화와 고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영웅의 일대기’라 하여, 그 보편적인 서사구조를 일곱 단락으로 산출해내기도 하였다.³¹⁾ 반면 여타의 연구자들은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건국신화에 두루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치기도 하였다.³²⁾ 논쟁의

24) 이재원,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육논문집』 제6호, 한국체육대학교, 2001, 25~27면; 이재원, 「남한과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고조선단군학』 제9집, 단군학회, 2003, 83~114면;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 『고조선단군학』 제13집, 단군학회, 2005, 275~325면.

25) 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171~190면.

26) 황폐강, 『한국의 신화』, 단국대출판부, 1988, 7면.

27) 서대석, 「동아시아 영웅신화의 비교연구」,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534면.

28) 서대석, 「동아시아 영웅신화의 비교연구」,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534면.

29) 이지영, 「주몽신화를 통해본 건국신화 속의 건국과정의 두 양상」, 『한국문화연구』 제10집, 2006, 238면.

30) 이강엽, 「<동명왕편> 소재 양가물의 신화적 기능과 서사맥락에서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학회, 2008, 139면.

31)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32)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최원오,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화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한 학계에서는 <주몽신화>를 비롯한 건국신화들은 신 내지 영웅들의 이야기임을 전제하고 그 주인공들을 신 내지 영웅들로 간주하고 있다.

남한 문학계에서의 유화에 대한 시선 역시 그녀의 신적인 면모에 치중되어 있다. 주몽이라는 영웅 탄생의 배경이 된 유화와 해모수의 결연을 천부지모형의 신성혼이라 규정하며, 이들의 결합은 하늘과 땅의 결합을 상징하며 이들의 분리는 건국신화나 일반 무속신화에 통상적으로 드러나는 신성혼 구조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³³⁾ 특히 작품 속 유화의 특성을 두고, 유화의 출산을 대지에서 생명이 싹트는 자연현상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³⁴⁾하기도 하고, 지모신이나 수신과 곡신 등의 신적인 면모를 포착한 경우도 있다.³⁵⁾ 남성본위의 신화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성은 격하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 연구³⁶⁾와 같이 유화가 겪은 수난 과정에 주목하여 신화적인 의미를 추출하기도 하였다.

현실 인간 문제로써의 유화가 지닌 의미를 분석한 연구들도 발표된 바 있다. 여성 일대기에 걸친 모든 수난 과정이 드러난다고 본 논의³⁷⁾를 시작으로, 여성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온갖 수난을 다 갖춘 여성 수난의 모형³⁸⁾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의 수난을 보여주는 인물로 인식³⁹⁾하는 등 유화의 수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선을 읽을 수 있다. 한편으로 유화와 주몽의 관계를 중점으로 모성성의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⁴⁰⁾, 해모수와 유화, 그리고 금와왕의 관계를 중심으로 ‘질투’의 문제를 포착하려는 논의도 발표된 바 있다.⁴¹⁾

북한의 연구에서 <주몽신화>의 등장인물에 논의는 다수 발견된다. 대체로 주몽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가 고구려인의 상무적인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다.⁴²⁾ 이 외에도 해모수에 대해서는 신적인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면서도 현실세계의 인간적 면모를 지닌 용감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기도 하고⁴³⁾, 하백에 대해서는 허욕으로 가득 찬 지배층으로 평가하기도 한다.⁴⁴⁾ 금와왕에 대해서는 유화를 보호해준 존재로 보기도 하고⁴⁵⁾, 주몽과 유화를 억압한 존재로 보기도 한다.⁴⁶⁾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몽에 대한 논의와 비견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유화에 대한 것이다.

신화에서의 유화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하거나, 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33)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34) 서대석, 「인문학과 신화의 해석」, 『서강인문논총』 제16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1~31면.

35)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2002, 86면.(1~579면)

36) 조현설, 『옹녀 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 체계』,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10면.

37)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38) 광정식, 『한국설화에서 본 여성 주체의 자각과 성장』, 경성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4, 131면.

39)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5~49집.

40)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53~54면.

41) 정운채, 「질투에 대한 고전문학의 특별한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제9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229~249면.

42)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지, 『조선문학통사(고대·중세편)』,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이화문화사, 1996, 51면.); 김준택 지, 『조선문학사1』, 조선어문학부흥,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임현영 해석, 천지, 1989., 56면.);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7~108면.; 정홍교, <중세조선의 첫 서사시 《동명왕편》>, 『조선어문』 2005.3호.

43)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62면.

44)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63면.

45) 허태선, <고구려의 건국실화 - 주몽전설>, 『민족문화유산』 2003.4호.

46)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8면.

가 가족 내 여성이 겪는 수난의 전형으로 인식하는 남한 연구들에 비해, 북한에서는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여 수난을 극복하고 영웅을 만들어낸 어머니로 유화를 예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금와왕을 주몽과 유화를 억압한 포악한 지배층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금와왕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유화에 대한 예찬으로 직결된다.

설화에서는 금와왕 밑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주몽을 낳아 기르는 유화의 형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⁴⁷⁾

…금와왕 밑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아들을 낳아 기르는 여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⁴⁸⁾

동명왕은 유화가 해모수와 하백에게 버림받게 되자 함께 금와왕의 통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유화는 주인공 주몽의 성장과 성격발전에 긴밀히 안받침이 되어 부각되고 있다. …… 그에게는 아름다운 청춘시절이 있었고 결혼의 행복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남편과 아버지의 버림을 받아 잔혹한 통치자 금와왕의 구토에 추방당하여 비인간적인 노예적지위에서 갖은 풍상고초를 겪으며 고통스런 생활을 한다. 그는 비록 금와왕의 갖은 통욕과 학대하에서 묵묵하게 살아가지만 전부의 희망을 아들한테 걸고 군세계 살아간다. 그는 자기의 온 심혈을 기울여 사랑하는 아들 주몽을 키웠다.⁴⁹⁾

위의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금와왕을 잔혹한 통치자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영웅을 키워낸 유화의 업적을 부각시켜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유화를 “국조의 어머니다운 모습”⁵⁰⁾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작품에 드러난 유화의 면모는 고구려 혹은 우리 민족 여성들이 지닌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류화의 이러한 형상은 고구려녀인들이 지니었던 강의하고 슬기로운 성격미와 아름다운 인정세계를 감명깊이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⁵¹⁾

작품에서 그는 비록 시인의 예술적환상의 산물이지만 그의 몸에는 고대조선민족여성들의 내강외유의 민족적 특질이 충분히 표현되고 있다.⁵²⁾

슬기로운 성격과 인정의 아름다움, 내강외유 등 유화의 면모가 우리 민족의 여인들이 지

4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저, 『조선문학통사(고대·중세편)』,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이화문화사, 1996, 51면.)

48) 김춘택 저, 『조선문학사1』, 조선어문학부용,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임현영 해석, 천지, 1989, 56~57면.)

49) 리암, 「리규보의 <동명왕편>과 민간문학」

50) 김춘택 저, 『조선문학사1』, 조선어문학부용,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임현영 해석, 천지, 1989, 56~57면.)

51)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8면.

52) 리암, 「리규보의 <동명왕편>과 민간문학」

녀은 우수한 특질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유화의 주몽을 양육하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화의 양육 과정을 상세히 다루어 유화의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금와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해치려고 할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하니 너 같은 재능과 지력을 가지고 어디 간들 나쁠 것인가.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멀리 가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오곡의 씨앗을 주어 길을 떠나 보내는 유화의 형상에서는 강인하고 슬기로운 성격적 특질이 표현되어 있다.⁵³⁾

금와왕의 일곱 아들들이 주몽을 시기하여 해치려는 것을 알게 된 유화는 자기 아들에게 준마를 골라 기르게 하고, 마침내 동부여 땅을 떠나 남쪽으로 가서 큰 뜻을 실현하도록 한다. 그것을 위해 유화는 아들에게 오곡의 씨앗을 주어 보낸다. 이와같이 유화는 다만 아들을 낳아 키울 뿐 아니라 아들의 슬기와 지혜·용맹을 키워 주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어머니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 전설에는 봉건 통치 계급의 사상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으나, 이상과 같은 내용이 있어 오랫동안 인민들 속에 전해지고 있다.⁵⁴⁾

유화는 비록 철없는 자식의 엉뚱한 말이라도 소홀히 듣지 않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며 아들의 울분에 찬 말을 듣고서는 나도 이 일로 마음을 썩이고있다고 하며 교훈적인 이야기로 지략을 키워준다. 또한 아들이 길을 떠나게 될 때에는 자신에게 미칠 위험은 가슴속에 감추고 어머니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5곡의 종자를 싸주면서 그의 장래를 고무해준다.⁵⁵⁾

그는 아들이 말몰이군질을 하면서도 금와왕과 그의 네 아들의 갖은 강포에도 굴함 없이 원대한 리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선뜻이 아들을 먼곳에 보내여 대업을 이루게 한다. 아들이 떠날 때 그는 “눈 가득 맑은 눈물을 머금으며 ‘내 걱정은 말아라, 나도 언제나 가슴아파하였다. 사나이가 먼길을 떠나려면 반드시 좋은 말이 있어야 하느니라.’”라고 깨우치며 아들에게 오곡의 씨앗을 주어 대업을 이룩하도록 한다. 유화의 이렇듯 순박하고 강의하며 자애롭고 현숙한 품성은 오늘의 우리가 보아도 의연히 친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⁵⁶⁾

위의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연구에서는 유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아들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준 일, 준마를 골라 기르게 하도록 한 일, 대업을 이루도록 아들을 보내주고, 오곡의 씨앗을 준 일 등에서 유화의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이 장면들에서 아들의 슬기와 용맹을 키워준 지혜로움과

5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저, 『조선문학통사(고대·중세편)』,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이화문화사, 1996, 51면.)

54) 김춘택 저, 『조선문학사1』, 조선어문학부용,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임현영 해석, 천지, 1989, 56~57면.)

55)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08면.

56) 리암, 「리규보의 <동명왕편>과 민간문학」

대업을 이루도록 보내주는 데에서 현숙한 품성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훌륭한 어머니 상과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⁵⁷⁾ 북한의 문학관이나, 북한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고려하면 북한 사회에서의 ‘유화’의 의미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 사회의 인식이 깊이 반영된 문학사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2.)에는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 문학은 인민 대중을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생활과 투쟁의 훌륭한 교과서로 복무하고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관되고 로동계급적 선이 똑똑히 선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참다운 혁명적 문학으로 찬란히 개화 발전하고 있다.⁵⁸⁾

북한은 문학을 주체사상을 고양시킬 중요한 교육 자료로 삼고 있다.⁵⁹⁾ 이는 문학이 지닌 교훈적 가치와 교육적 기능을 중시한 관점으로, 문학의 교육적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짐작하게 한다. 즉 교육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는 작품은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전달될 만한 교훈적 가치가 없는 작품 속 인물은 예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문학의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예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화’의 의미가 확인된다.

게다가 위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문학 연구 경향은 문학관에 깊게 반영된 주체사상⁶⁰⁾에서 비롯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체사실주의에 대한 개념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표명하고 있는 ‘주체문예이론’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 문예이론의 토대가 되는 것이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주체사실주의이다. 이 주체사실주의의 이론적 출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서 주체 사실주의도 넓은 의미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학예술사전》에서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 방법”으로 정의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을 자기나라 인민이 선호하고 인민의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인민을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에 적극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양시키는 데 이바지 하는 창작방법이라고

57) 이러한 관점은 기왕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렇듯 북한에서 주몽 전설의 표면적 내용과 인물상에 강조점을 주는 것은 어떠한 북한이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의 주역이라 선전하는 인민들에게 필요한 가치관과 지향해야 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마땅히 주몽과 유화야말로 인민의 기층 문학에서 발견한 전통적 주체 사상을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182면.)

58)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19면 재인용.

59)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면.

60) 1967년 5월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 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유일 사상체계의 확립을 결정한다. 오직 김일성의 사상만이 모든 면에 관철되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 김일성을 향한 개인숭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었던 것이지만, 이제 조직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 김일성의 사상은 주체사상으로 표방된다. 주체사상의 기원은 항일무장투쟁의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 주체사상은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규정되었다. (신형기 오성호 지음, 『북한문학사』, 2000, 256-257면.)

하였다.⁶¹⁾

주체사상이 정립된 이후의 문학 경향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민이 선호하고 인민의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이 구현되어 있고, 인민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를 교양시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우수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화’를 예찬하고 있는 북한 문학사의 경향성은 ‘유화’가 주체사상이 지향하는 바에 적합한 인물로 손색이 없다는 북한 사회의 인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정립되고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훌륭한 인물상으로 ‘숨은 영웅’론 들 수 있는데, 이에도 ‘유화’의 특질이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에선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을 ‘숨은 영웅’으로 규정하였다. ‘수령과 조국에 끝없이 충실하면서도 명예와 보수를 바라지 않으며 묵묵히 일하는’ 숨은 영웅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방식을 강조하면서, 사적 영역에도 공적 윤리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함을 알린 것이다. 특히 북한 문학에서 세속적 지향은 부정적인 인물의 특징으로 간주되었고, 긍정적인 인물은 세속적 유혹으로부터 초연해야 했으며, 아니면 인물이 자신의 영달을 추구했거나 이기주의에 봉착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드러나야 했다.⁶²⁾

북한에서 제시한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 숨은 영웅은 사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공적 윤리를 관철하는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유화가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어 위업을 성취하게끔 희생한 지점과 관련된다. 유화의 이러한 면모에 대해 북한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화두로 삼아온 현상에 대해서는 ‘숨은 영웅’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북한에서는 작품 표면에 드러난 유화의 행위를 근거로 아들에게 슬기와 용맹을 키워준 장본인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미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참아 이겨내고 아들을 보내준 현숙한 어머니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화가 갖춘 지혜로움과 현숙함은 북한 사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훌륭한 어머니의 덕목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혜 전수’와 ‘떠나보냄’의 가치, ‘유화’를 통해 드러난 양육의 덕목

천상의 아버지와 지상의 어머니의 결합으로 영웅이 탄생되는 건국신화라는 점에서 <주몽신화>는 <단군신화>와 유사한 지점이 많다. 아버지가 홀로 영웅을 키워낸다는 점에서도 웅녀와 유화는 동일한 특성을 지니지만, 차이점 중의 하나가 유화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웅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는 단군을 양육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반면, 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는 주몽을 양육하는 과정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웅녀와 달리, 유화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낳는 것’보다도 ‘기르는 것’에 더 본질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유화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지점도 양육의 문제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이 장에서는 남한에 전승되어온 양

61)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133~139면.

62) 신형기 오성호 지음, 『북한문학사』, 2000, 319~320면. 참고

육의 문제를 다룬 구비설화작품을 통해 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육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유화의 덕목은 아들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준 장면, 준마를 골라 기르게 하도록 한 장면, 대업을 이루도록 아들을 보내주고, 오곡의 씨앗을 준 장면 등에서 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모두 주몽 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위기의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유화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로움과 아들의 독립과 성장을 위해 희생하는 현숙함이 드러난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각 지점에서 유화의 덕목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찰해볼 덕목은 유화의 지혜로움이다. 이 덕목은 주몽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준 장면, 준마를 골라준 장면, 오곡의 씨앗을 준 장면 등에서 드러난다. 이 세 장면의 공통적인 특징은 위기에 처한 주몽에게 위기를 타파할 만한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⁶³⁾

“파리가 눈을 빨아서 / 누워 편안히 잘 수 없다.”⁶⁴⁾ 는 주몽에게 유화는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주몽은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였는데, 이에 유화는 주몽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알아채고 그것을 발휘할 만한 기회를 마련해준 것이다. 말을 키우는 일을 맡게 된 주몽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출가의 뜻을 밝히자⁶⁵⁾, 유화는 준마를 골라내는 방법을 알려주며 출가 준비를 돕는다. 이 또한 좌절한 주몽에게 그 위기를 타파할 지혜를 전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곡의 씨앗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유화의 지혜로움이 부각된다.⁶⁶⁾ 새로운 땅에 도착하여 대업을 이루려는 주몽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생계를 꾸려갈 방도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 둔 것과 깜박 잊은 주몽에게 신이한 능력으로 씨앗을 전달한 것 역시 막막한 주몽에게 타개책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꼽는 유화의 지혜로움은 무엇보다 아들의 비범함에 대한 대처, 아들의 위기에 대한 대처에서 돋보인다. 지혜로움은 다만 주체가 간직한 상태에서 보다 지혜로써 대처하거나 전수하는 데에까지 이어지는 양육의 이상적인 모습과 어울려 있다.

유화의 양육 과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 깊게 이해될 수 있다. 90년대에까지 남한에 구전되어 온 설화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83편 가량 실려 있는 <아기장수>⁶⁷⁾는 유화와 대비되는 영웅의 어머니가 등장한

63) 남한에서의 대다수 연구자들은 <주몽신화>의 서사를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문헌자료를 <동명왕편>으로 보고, 북한에서는 <동명왕편>에 첨부된 <동명왕본기>를 원전 텍스트로 인정하는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몽신화>의 각 장면에 대한 분석 대상을 <동명왕편>의 본시와 그 주로 인용된 『구삼국사』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64) “自言蠅嚼目/臥不能安睡” <동명왕편> 본시

65) “自思天之孫/廝牧良可耻/捫心常竊導/吾生不如死/意將往南土/立國立城市/爲緣慈母在/離別誠未易” <동명왕편> 본시

66) “주몽이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니 어머니가 말하길, ‘너는 어미 걱정을 하지 말아라.’하고는, 오곡 종자를 싸서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주몽은 살아 이별하는 마음이 애절하여, 보리종자를 그만 잊어 버렸다. 주몽이 큰 나무 밑에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이 ‘아마도 신모께서 보리 종자를 보내신 것이리라.’하고,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떨어 뜨렸다. 새의 목구멍을 벌려 보리 종자를 얻고 나서 물을 뱉으니, 비둘기가 다시 살아서 날아갔다.” (<동명왕편>의 “雙鳩含麥飛/來作神母使”에 대한 주(註) 『구삼국사』의 기록)

67) 아래의 제시문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설화를 요약정리한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수록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8-9, 716-719면, 이복면 설화28, 아기 장수, 제훈이(여, 64) (1)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열한 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여자가 항상 업고 다녔다. (2)어느 여름, 여자가 모를 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하루 종일 심은 모가 몇 포기냐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을 못하자 그 사람은 떠났다. 그때 등에 업혀 있던 아이가 그럴 때는 오늘 하루 종일 몇 걸음이나 걸었냐고 되물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3)엄마는 아이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했다. 그러자 아이는 방금 그 사람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다며, 얼른 장부자 집과 최부자 집에 가서 팔 서 말과 잔조 서 말을 받아 오라고 했다. (4)엄마가 팔과 조를 준비해오자, 아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테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딱 잡아

다.

세상의 공격으로 좌절된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아기장수>는 수많은 남한 연구자들에게 주목된 설화작품 중 하나이며, 남한의 교과서에도 수록된 바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설 가운데 하나이다. 그 중 한 각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작품 초반에는 아기장수의 남다른 총명함이 세상에 알려지는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후반에는 어머니의 실수로 영웅 출현이 좌절되는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훈이(여, 64)’라는 제보자에 의해 구연된 각편에서는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상태였음이 제시된다.

어린애가, 한 사람이 어린애를 낳아놓이께, 그 어린애가 나이 열 한 살을 목도록 걸음을 걷지 못하고 말을 못 하더라고 카데. 항상 저거매(자기어머니) 둥더리 업히기 있는 기라,

…… 엄마가 사시(四時)로 업고, 모도 숨그고(심고) 흘몸처럼 이래 전부 사용을 하는데, 그레 하로는 그장(늘) 그애를 업고 일로 오만 거를 다 하는데,⁶⁸⁾

아이가 열한 살이 먹도록 걸음을 걷지 못하고 어머니 등에 업혀 다녔다고 구연한다. 이 지점은 마치 주몽이 태어나서 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호소하였던 지점과 닮아 있다. 아이가 남들과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그에 맞는 일을 권하는 유화의 지혜로움과 달리 아기장수의 어머니는 사시사철 아이를 업고 일을 하는 태도로 대응한다.

발을 일구는 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한 사내를 보고 아기는 직감적으로 자신을 잡으려 온 존재임을 알아챈다. 어머니가 아기장수를 업고 다니다가 영웅이 세상에 노출되는 위기가 야기된 것이다. 이로 보면 아기장수가 제 스스로 걸음을 걷지 못한 데에는 아직 세상에 나갈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시기의 영웅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사내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여 아이의 총명함이 드러나자 어머니는 기뻐하지만, 아이는 위기를 감지한다. 아들의 비범함이 발견되는 순간에 그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유화의 대응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조금 더있으면 쟁힐 챔인데 떡 고 가뵈다.

그레 가고나이께, 막 가고 난께 요놈의 할마이가 있다가 직일라칸께 방정 시 렷 어 가지 고,

“아이고. 예, 가리치 드리겠십니더, 가리치 드리겠십니더.”⁶⁹⁾

자신이 숨은 곳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아기장수의 부탁에도 두려움에 못 이겨 발설하는

때라고 했다. 엄마는 알았다면서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다. 아이는 알려 주지 않으려다가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저 앞산 바위 아래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다. (5)잠시 후 사람들이 들이닥쳐 아이가 숨어있는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자, 엄마는 사실을 털어 놓고 말했다. (6)한편 바위 아래는 팔은 말로 변하고 조는 장수로 변해, 아이가 말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바위를 파헤쳤다. (7)만일 아이가 말에 다리를 다 올렸으면 장수가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68) 『한국구비문학대계』 8-9, 716면.

69) 『한국구비문학대계』 8-9, 717면.

위의 장면에서도,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아들을 기꺼이 보내준 유화의 행동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그만 쫓아 들어간게네로, 새로 비고, 참 이것도 싹 들어간게네로, 팔 그거는 전부 말이고, 장조는 전부 장수라. 장순데, 말 한 다리를 조금만 매물했으면 될 텐데, [청중 : 아이 조금만 머물렀으면 크기 될 사람인데.]고 에미가. 다리를 탁 한 다리 덜었어 가지고 한 다리는 땅이고, 사르르안개걸이 잦아져뵈어. 고걸 좀 머물렀면 타고 올라앉아뵈으면 됐는데, 고래 방정시럽기, 여자 이거(이것이)시염(수염)도 안 나고, 이거 몬 씨요(못씨요). [웃음]⁷⁰⁾

대다수의 <아기장수> 각편에서는 좌절된 영웅의 마지막 장면을 위와 같이 형상화하고 있다. 아기장수가 은신한 곳을 찾아가니 아기장수가 한 다리는 말에 타고 한 다리는 땅을 딛고 있는 모습에서 안개 같이 사라졌다고 전하며, 그 안타까움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이 각편에서의 구연자는 영웅의 좌절을 어머니, 여자의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구연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연자가 그 어머니를 ‘고래 방정시럽기’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북한에서 유화의 덕목으로 ‘현숙함’을 들고 있는 관점과 상통한다. 양육의 덕목에 대한 남북한의 시선이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기장수>는 아이의 비범함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위기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방식이 유화와 구별되는 지점을 확연히 보여준다. 사태의 전말을 이해하고 합의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부모와 아이에게서 동시에 발현되느냐, 아니면 한 쪽은 결여되어 있느냐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아직 불완전한 존재인 영웅이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데에 어머니의 역할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동일한 서사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몽신화>는 성공하는 결말에 이르고 <아기장수>는 실패하는 결말에 이르지만, 작품의 심층에는 영웅의 탄생에 양육의 문제가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식이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통해 영웅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관계적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의 비범함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아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준 유화의 지혜로움도 우수하지만, 유화의 덕목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대업을 이룰 아들을 미련 없이 보내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와의 아들들로 부터의 위협에 닥친 주몽을 보내주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버 없이 홀몸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온 아들을 재회의 기약 없이 쉽사리 보내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녀의 성장과 독립에 몰두하여 용기를 발휘한 경지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⁷¹⁾ 이는 아버지

70) 『한국구비문학대계』 8-9, 717면.

71) 문학치료학에서는 자녀의 독립과 성장을 부모서사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부모서사는 양육이 주안점이다. 양육은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시키려는 것이 지향점이다. …… 그런데 부모서사의 양육은 자녀의 성장과 독립이 최종 목표이다. 만약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기보다 나에게 복종하고 순응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사실 부모서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오히려 자녀서사의 영역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자녀에게 복종과 순응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8.30,

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영웅을 양육해내는 데에 성공한 지점인 것이다.

<아기장수>의 어머니가 두려움에 아기장수와 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지점 역시 유화의 ‘떠나보냄’과 크게 구별된다. 그리고 다음의 설화 작품은 더욱 그 의미를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7편 가량 수록된 다음의 이야기는 유화에 견줄 수 있는 양육 방식을 추구한 부모가 등장한다.

<정승의 사위 된 황도령>⁷²⁾은 개가가 금지된 시절에 시집 간지 일 년도 안 되어 과부가

247~278쪽.)

72) 아래의 제시문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설화를 요약정리한 『문학치료 서사사진』에 수록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2-7, 457-469면, 갑천면 설화43, 정승의 사위 된 황도령, 진병두(남, 79) (1)경북 의성에 사는 김진사의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황도령이라는 종이 같이 따라 갔다. (2)두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여 한 곳에 방을 정하고 김진사의 아들은 볼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고 혼자 있게 된 황도령도 서울 구경이나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3)한편, 서울 이정승의 딸이 시집 간 지 일 년도 안 되어 상부(喪夫)를 당한 탓에 친정에 와 있었는데, 이정승이 혹시라도 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저녁마다 딸이 머무는 별당을 한 번씩 돌아다녔다. (4)하루는 이정승이 딸 방에서 “아유, 그 의복이 맞지 않으세요? 그럼 다른 걸 입으세요.”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딸이 큰 베개에다 옷을 입히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5)이정승은 딸이 오죽 남편 생각이 나면 저런 짓을 할까 싶고 그냥 뒀다가 딸이 미칠 것 같아 부인에게 딸을 몰래 재가 시키자고 했다. 부인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대감의 처분대로 하라고 했다. (6)황도령이 서울 구경을 다니다가 어떤 큼직한 기와집에서 풍경소리가 텅그렁텅그렁 나고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이정승의 집이었다. (7)마침 이정승이 누구한테 딸을 보내야하나 싶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골 사람이지만 기골이 장대한 어떤 총각이 화단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8)이정승이 문을 열고 어떤 놈이 길래 화단에서 그런 표정으로 있느냐며 이리 들어오라고 했다. 황도령은 별별 떨며 방에 들어가 경북 의성에서 왔다고 했다. (9)이정승이 종에게 새 의복 한 벌을 내오게 하여 황도령에게 입으라고 했다. 황도령이 정승의 옷을 입으니 아주 다른 사람처럼 보였는데, 정작 황도령은 무서워서 별별 떨고 있었다. (10)이정승이 자기 부인에게 가서 사랑에 경북 의성 산다는 사람이 있으니 문틈으로 한번 보라고 했다. 부인이 문틈으로 보니 총각이 기골이 장대하고 의복도 잘 입어 인물이 괜찮았다. 이정승이 부인에게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고 오늘 밤에 그냥 몰래 보내버리자고 했다. 이정승의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11)밤이 이슬해지자 이정승 부인이 딸에게 가서 여자라면 출가해서 낭군을 보는 것이 도리인데 집에 남아봐야 소용이 없게 되었으니 사랑에 있는 시골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다. 그리고 딸에게 옥과 금으로 만든 패물 등이 든 상자와 좋은 의복 여러 벌을 싸주었다. (12)이정승은 황도령에게 자기 딸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살라면서 자기 딸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했다. 황도령이 별별 떨면서 이정승의 딸을 데리고 나왔다. (13)그날 두 사람이 의성으로 내려가는데 황도령이 돈이 한 푼도 없어 이정승의 딸이 아침, 점심을 모두 대접했다. 저녁이 되어 황도령이 이정승의 딸과 한 방에서 잤는데, 황도령은 이정승의 딸에게 감히 팔을 댈 수도 없었다. (14)황도령과 이정승의 딸이 하루 이십리나 삼십 리 씩 걸으며 사나흘 내려갔는데, 하루는 이정승의 딸이 황도령에게 팔을 얹으며 당신과 나 우리 둘이 내외로 살 텐데 멀리 갈 것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그날 저녁을 함께 지내고 황도령이 이정승의 딸에게 상투를 짜 달라고 했다. 황도령이 상투를 트니 누가 봐도 내외지간으로 보였다. (15)황도령이 이정승의 딸과 경북 의성의 김진사 집에 도착했다. 김진사가 자기 아들의 과거 소식을 물었지만 황도령은 모른다고 했다. (16)그런데 김진사가 보니 황도령이 옥 같이 예쁜 여자와 함께 들어왔는데 여자가 대갓집 처녀인 것 같았다. 김진사가 이정승의 딸에게 황도령과 어떻게 되냐고 묻자, 여자가 자기 남편이라며 서울에서 만났다고 했다. 김진사가 필유극절한 일이 있을 것이라며 여자를 잘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잘 지냈다. (17)한편, 김진사의 아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황도령이 없자, 의성에 돌아가면 단매에 처서 아주 초죽음을 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18)김진사의 아들이 과거에 낙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 황도령을 찾으며 혼을 내겠다고 했다. 김진사가 아들을 말리며 황도령이 대갓집의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필시 사연이 있을 테니 내막을 알기 전에는 황도령을 마음대로 다루지 말라고 했다. (19)이정승의 딸이 바느질도 잘하고 서울 말을 쓰는 데다 아주 배움이 있는 여자라 김진사가 아주 예뻐하였다. (20)그렇게 지낸지가 일 년이 되어갔는데, 하루는 이정승의 딸이 의성의 한 재벌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전장(田莊)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1)이정승의 딸이 자기 남편인 황도령에게 그 재벌의 전장을 사오라고 하자, 황도령이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라며 망설였다. 이정승의 딸이 그럼 그만두라고 했다. (22)이정승의 딸이 김진사에게 가서 어떤 부자가 전장을 방매한다고 하니 그것을 대신 사 달라고 청을 했다. 김진사가 돈이 그만큼 있느냐며 걱정했지만 이정승의 딸이 염려 말고 흥정을 해 달라고 하였다. (23)이정승의 딸이 전장을 파는 사람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전장을 사서 그곳에서 집을 지어 사는데 서울계로 대목을 들여 경상도 집을 서울식으로 만들었다.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주안을 갖춰 잘 대접하고 마음대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골패(骨牌)를 하고 놀게 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황도령을 황도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좋아했다. (24)한편, 서울 이정승의 아들이 경상감사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정승이 아들에게 소원이 있다며 경상도로 보낸 누이 소식 좀 알아오라고 부탁을 했다. (25)이정승의 아들이 알겠다고

된 딸을 거짓 장례를 치러가며 개가를 시킨 부모가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부모는 베게에 옷을 입혀 신랑신부 놀이를 하고 있는 딸을 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준다. 그리고 딸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위법을 감수하고 딸을 떠나보낸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딸은 기울어진 황씨 가문을 되살리는 아들을 생산해낸다. 결국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 하나의 영웅을 만들어 내는 계기로 작용된 것이다.

한국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교육과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비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한국사회의 현재 풍토를 고려하면 이들의 양육방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자녀가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구별되는 지점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승의 사위된 황도령>의 아버지를 두고 기왕의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의 목표가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데 있다기보다는 자녀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⁷³⁾며, ‘양육의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작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영웅성을 실현한 주몽을 키워낸 유화의 양육 방식에 버금가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를 영웅으로 만들어낸 <주몽신화>의 유화, <정승의 사위된 황도령>의 아버지와 그 일을 실패한 <아기장수>의 어머니는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위하여 주안점을 무엇에 두었나 의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는 자녀의 독립과 성장,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이나 아쉬움을 떨쳐내고 그들을 보내주었고, 후자의 경우는 자녀와 분리되자 두려움에 휩싸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모로서의 ‘떠나보냄’의 성공과 실패가 자녀의 양육 문제에 크게 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남한에서 현대에까지도 그 의미가 유효한 구비설화들을 통해서 <주몽신화>의

하고 경상감사로 내려왔다. 이정승의 아들이 경상감사 부임 초에 각 군을 돌아다니는데, 의성에 와보니 한 곳에 서울식으로 집을 지은 곳이 있었다. 경상감사가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집으로 갔다. (26)경상감사가 가서 주인을 찾으니 황도령이 나왔다. 경상감사가 자신이 감사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파서 좀 쉬려고 왔다고 했다. (27)황도령이 그러냐며 주안을 차려서 나왔는데, 경상감사가 보니 주인은 서울 말씨가 아닌데 음식은 서울식이었다. 경상감사가 부인 처가가 어디냐고 묻자 황도령이 서울이라고 했다. (28)경상감사가 혹시 누이가 사는가 하고 서울에서 장가를 들었냐며 캐물어, 황도령이 이정승의 딸과 결혼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부인에게 들어가 밖에 온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다. (29)이정승의 딸이 자기도 친정소식을 몰라 궁금하던 차에 서울사람이 왔다고 하여 문틈으로 내다보니 의복을 잘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정승의 딸이 황도령에게 서울 사람이면 성명이 뭔지 알아보라고 하여 알아보니 자기의 동생이었다. (30)이정승의 딸이 쫓아 나와서 남매간에 상봉을 하게 되었다. 이정승의 딸이 동생에게 김진사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나왔다면 여기 와서 세를 보여야겠는데 세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31)동생이 자기가 경상감사로 와 있으니 염려 말라며 황도령을 훌륭한 양반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 날 자기가 오시라고 편지를 하면 누굴 오라 가라 하나며 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종을 보내서 오라고 하겠다고 했다. (32)경상감사가 잔치를 배설(排設)했다며 각 군의 수령들을 모두 청하고 편지를 써서 황도령에게 보냈는데 황도령이 경상감사가 시키는 대로 하여 경상감사가 사인교를 갖춰 보냈다. (33)김진사가 경상감사의 잔치에 초대받아 그 자리에 있다가 황도령이 사인교에서 내리고 경상감사는 매형이라 부르며 노여움을 푸시라며 극진히 맞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34)경상감사가 각 군 수령보고 자기 매형이니 모두 인사를 하라고 하자 김진사도 자기가 부리던 하인이지만 감사의 매형이라 공손히 존대를 하며 인사를 했다. (35)경상감사가 각 군 수령들이 권한 술잔을 황도령에게 두 손으로 들어 바치며 매형이 계시니 제일 먼저 드시라고 했다. (36)경상감사가 황도령에게 여기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살인죄 이외에는 매형이 청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그렇게 알라며 약조를 해주었다. (37)그 뒤로 사람들이 옥에 갇히면 황도령에게 찾아왔는데, 황도령이 감사에게 편지 한 장을 하게 되면 갇힌 사람을 풀어줘 황도령이 경상도에서 제일 권위자가 되었다. (38)나중에 경상감사가 내직으로 들어갈 때 황도령과 이정승의 딸도 같이 서울로 들어갔다. (39)이정승의 딸이 그 집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독선생을 두고 공부를 시켜 황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73) 정운채, 『자기서사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서사척도』,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213~241쪽.

유화가 전달하고 있는 양육 문제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두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유화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달하고 있는 훌륭한 어머니의 덕목이 지닌 가치와 더불어 영웅이 생산되는 데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양육의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의의가 재확인 되었다. <주몽신화>에 대한 남북한의 평가와 더불어 위의 설화작품들이 현대의 남한에서 구비적으로 전승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양육의 열정이 가득한 남한사회의 풍토를 염두에 두면, 남과 북이 공통으로 추구할 수 있는 양육 문제에 대한 지향점이 ‘유화’의 ‘지혜 전수’와 ‘떠나보냄’을 통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4. 결론

본고는 남한과 북한의 정서적 소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주몽신화>의 유화에 대한 북한 문학사의 관점을 남한 학계의 관점과 비교하면서, 북한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현숙한 어머니의 덕목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현대에까지 남한에 전승되고 있는 두 설화작품을 통해, 유화의 양육 방식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남한 문학계에서는 유화의 신적인 면모에 주목하거나, <주몽신화>에서 드러난 유화의 삶 전반에 주목하여 가부장제 사회 속에 수난을 인내하며 살아하는 여성 개체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영웅을 양육한 현숙한 어머니의 전형으로 예찬하여, 보다 그녀가 이루어낸 양육 성과에 주목하고 있었다.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은 주체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숨은 영웅’에 부합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양육의 방식 및 훌륭한 어머니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북한에서 예찬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구비설화에 등장하는 어머니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유화의 덕목을 구체화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북한의 핵심 문학연구들을 기반으로 유화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장면과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 덕목의 의의를 구체화하였다. 아직 불완전한 존재인 영웅이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데에 부모의 역할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아기장수>와 <정승의 사위 된 황도령>을 들어, ‘지혜 전수’와 ‘떠나보냄’이라는 유화의 덕목이 영웅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주몽신화>에 대한 남북한의 관심과 더불어, 근래에 까지 전승되던 설화작품들에서 유화의 면모와 상통하는 지점이 발견되는 바, 이 작업으로 ‘양육’이라는 인간 문제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관점이 소통될 수 있는 단초가 발견될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